



## 보도 자료

담당 부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이진구	2133-2210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종민	2133-2224
홍보담당관	김홍찬	2133-6405
홍보기획팀장	고경인	2133-6407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6쪽

### 서울시, '무제한 교통혁신' 기후동행카드 1.23(화) 사전판매 개시


- 전국최초 신개념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출범 앞두고 모바일·실물카드 판매 첫 선
- 23일(화) 판매개시 → 27일(토) 사용자·이용권종 6만 2천원·6만 5천원 폭넓게 선택
-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폰에서 다운로드 및 계좌이체·실물카드는 역사 등에서 구입 및 충전
- '기동카 장학퀴즈' 현장 이벤트로 시민 기대감↑...지속적인 서비스 개선·발전으로 편의성 증진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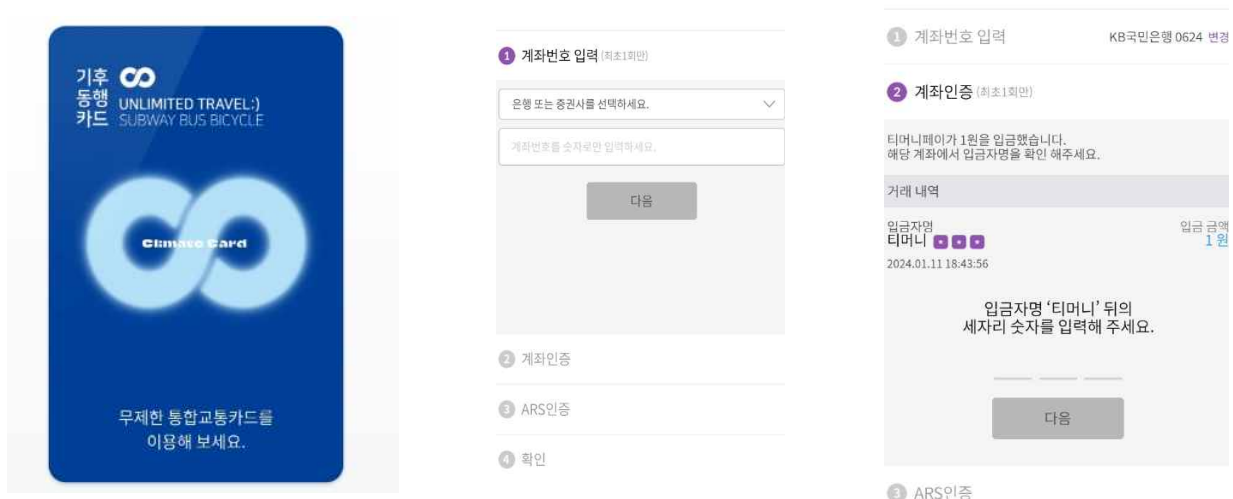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1월 27일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판매 개시에 나선다. 서비스 최초 출범 4일 전인 1월 23일(화)부터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및 실물카드 판매를 실시하고, 사전 안내 및 시민 참여 이벤트도 추진해 친환경 교통 혁신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나간다.



##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출범…23일부터 본격 판매 개시〉

-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도입한 새로운 교통 혁신 정책으로, 그간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중교통 관련 할인 상품의 성격과 혜택을 통합해 시민 편의를 대폭 늘린 무제한 통합 교통 정기권이다.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파격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기후 대응과 민생 편의 지원까지 다양한 효과가 전망돼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 기존 교통 정기권은 횟수가 제한되는 등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서울시가 선보이는 기후동행카드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제한 이용으로 서비스폭을 확장시켜 수단 연계성을 높여 평소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대중교통 이용을 한 번 더 고려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는 특징이 있다.
- 시민에게 본격적인 첫 선을 앞둔 만큼, 시는 현재 교통운송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 및 판매 준비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3주부터 사전 안내를 시작하고, 1월 23일(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 우선 따름이 이용 유무에 따라 선택폭을 넓혀 자신에게 맞는 권종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종으로 출시됐으며, ▲6만 2천원권 ▲6만 5천원권 중 선택하면 된다.
  - 30일 사용 기간 중에는 가격 변경이 어려우므로 따름이 이용 등 사용 패턴에 따라 나에게 맞는 권종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 구입 방법은 ‘모바일카드’ 및 ‘실물카드’ 두 가지로 나뉜다. 모두 1월 23일(화)부터 동일하게 다운로드와 판매를 시작하며, 사용은 27일(토) 첫 차부터다. 특히 1월 23일 이후 미리 모바일카드 및 실물카드를 구입해 준비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주말인 27일 토요일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동이 높아지는 외출 및 나들이 등에 먼저 활용하며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세부 구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바일티머니 ’ 앱의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을 마치면 된다. 첫 메인 화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해 최초 한번 계좌를 등록한 뒤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한 후 이용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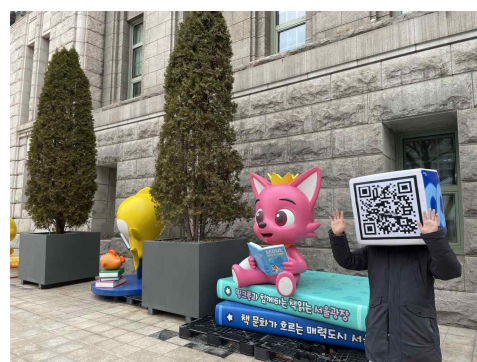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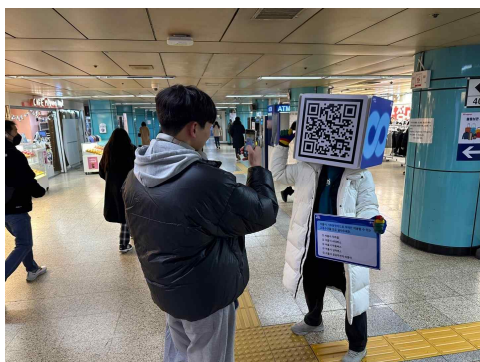
- ‘실물카드’는 1월 23일(화)부터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서울지역 2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이용은 1월 27일(토)부터 가능하므로, 대중교통 탑승 시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태그하면 된다.
- 9호선은 역사 내 편의점에서 신림선, 우이신설선 등은 주변 편의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3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기후동행카드의 충전서비스가 아직 지원되지 않고 있지만, 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역사 내 위치한 충전단말기에서 기존 교통카드 충전 과정과 동일하게 할 수 있어 지하철 탑승 시 이를 참고하면 된다.
- 구체적인 판매·충전소 위치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24. 1. 20. (토)부터 확인할 수 있다.
-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사용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 따릉이 이용이 포함된 6만 5천원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기종에 관계없이 ‘티머니GO’앱에서 기후동행카드의 번호 16자리를 입력 후 1시간 이용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단, 실물카드 이용자는 카드 뒷면 좌측 상단의 큐알코드로 접속해 ‘기후동행카드’ 회원가입을 미리 해야한다.
- <카드 등록 주소 - 티머니 카드 &페이>  
<https://pay.tmoney.co.kr/ncs/pct/tmnyintd/ReadClmtAcmpCard.dev>

-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 기후동행카드 이용안내 → 실물 기후동행카드  
 '카드등록 바로가기'



< 길거리 이벤트 '기동카 장학퀴즈' 행사·QR탈을 쓴 '기동이'가 진행 맡아 재미UP! >

- 기후동행카드의 높아져가는 기대감에 따라,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 앞, 대학가 등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길거리 이벤트 '기동카(기후동행카드) 장학퀴즈'를 진행하는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 퀴즈는 모두 기후동행카드와 관련된 문제로 구성된다. 진행은 QR코드 인형탈을 쓴 '기동이'가 맡는다. 퀴즈를 맞히면 추운 겨울 시린 손을 녹일 수 있는 핫팩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기동이 얼굴의 QR코드를 인식하면, 기동카 장학퀴즈 족보가 나온다며 쉽게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요령도 귀띔했다.



- 또한 이용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동영상과 이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시행 1주일 전인 1월 20일(토)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주)티머니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한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SNS), 전광판 등을 통해 전파하고 지하철과 버스에도 안내문을 부착하고 리플릿을 별도 배포한다.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이용에 대한 안내를 도울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구입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수도권까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수도권 시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지속적인 정책 기조에 따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제에 이은 친환경 교통 혁신 서비스를 완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 및 제도·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오는 1월 23일(화) 카드 구매를 시작으로 국내 최초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정기관인 ‘기후동행카드’를 드디어 시민 앞에 선보인다”라며 “그간 전국 대중교통 정책 역사에 있어 완전히 전무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한 만큼 출범 직후 지속적인 개선, 보완을 통해 편익을 높이고, 더 나아가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이은 교통 혁신을 시민 생활 속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